

전남 벼 품종개발 기간 대폭 줄인다

지난달 29일 전남도 농업기술원 쌀 연구소가 운영하는 유리온실에 들어서자 겨울추위 속에서도 가로 2m, 세로 10m 크기의 '베드'(bed) 4개에 한뼘 갈이의 어린 벼가 파릇파릇 자라고 있다.

지난해 12월 22일 파종한 뒤에 줄기 1~2개에 잎이 6~7개 나았다. 고유의 번호를 가진 1천425개체의 벼들 이 비단관처럼 질서정연하게 심어져 있다. 같은 날 심어진 벼이지만 둘연변이 처리한 품종도 있어 일부는 이파리가 누렇게 시들어 있거나 백화(白化·albino) 현상을 보이는 등 자라는 모습은 제각각이다.

벼 육종은 담당하는 신서호(42) 박사는 유리온실을 들여 벼들의 생육상태를 꿈꼼히 살펴 '시험연구조사 야장(野帳)'에 일일이 기록한다.

전남도가 지역특성에 맞는 새로운 벼 품종 개발의 '대장장'을 시작했다.

전남도 농업기술원 쌀연구소(소장

도 농기원 쌀연구소 유리온실 운영

기준 12~15년서 8~10년으로 단축

신해룡)은 최근 품종개발 기간 단축을 위해 '벼 세대단축 유리온실'을 만들었다. 유리온실은 213.5㎡ 규모로 국·도비 2억8천400만원이 투입됐다.

실험방은 전기로 가동하지만 작물이 자라는 '베드'는 태양열을 이용하는 계통육성(7년)→생산력 검정(3년)→지역적용시험(3년) 등 평균 12~15년이 소요되는 반면 '세대축진 온실'은 8~10년으로 앞당길 수 있다. 겨울철은 온실에서, 여름철은 노지에서 일년동안 2번의 벼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3월째에 온실 벼들이 가을로 '착각'하게끔 반드시 인위적으로 햇빛을 차단하는 '일장(日長) 처리'를 해줘야 한다. 이렇게 겨울철 온실에서 좋은 품질의 품종을 오는 4월

기도 하다.

이번 유리온실 설치는 벼 품종개발 기간을 조坚硬으로 단축하기 위한 것이다.

관행적인 벼 품종육성 방식으로는 계통육성(7년)→생산력 검정(3년)→지역적용시험(3년) 등 평균 12~15년이 소요되는 반면 '세대축진 온실'은 8~10년으로 앞당길 수 있다. 겨울철은 온실에서, 여름철은 노지에서 일년동안 2번의 벼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3월째에 온실 벼들이 가을로 '착각'하게끔 반드시 인위적으로 햇빛을 차단하는 '일장(日長) 처리'를 해줘야 한다. 이렇게 겨울철 온

실에서 좋은 품질의 품종을 오는 4월

중에 수확한 후 다시 노지시험장에 씨앗을 뿐만 아니라 선발작업을 계속 이어간다.

이와 함께 쌀 연구소는 오는 7월 유리온실에 이어 '조직배양실'을 만들어 끝가루를 배양하는 새로운 방식의 벼 육종에 나설 계획이다.

신해룡 쌀 연구소장은 "과거 벼 육종은 '나수화'이 최우선이었지만 최근에는 친환경 농업주제에 맞춰 병충해와 태풍 등에 강해야 함은 물론 고품질 또는 기능성 성분 등을 갖춰야 한다"며 "전남지역에 적합한 '밥맛 좋은' 우수한 품종을 개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지역은 지난해 18만3천 359ha(전국 20.3% 차지)에서 벼를 재배했으며 재배 품종은 일미벼(25%), 남평(16.8%), 동진 1호(15.9%), 온누리(10.1%), 흥평(8.7%), 운광(6.3%) 순으로 나타났다.

/송기동기자 song@

생산규모 2천억·부가가치 1천억

'강진 청자 액스포' 효과 크다

강진군이 추진하는 '2013 청자 액스포' 개최 계획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일 강진군에 따르면 최근 청자액스포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옴에 따라 전답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정부의 국제행사 승인을 받아 7월 조직위원회 구성과 제단법인 설립, 이사회와 사무국 구성 등 사업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한국행정연구원 분석결과 생산규모는 1천936억~2천385억원, 부가가치 816억~1천747억원, 취업자 3천553명~4천601명 증가 등으로 전망됐다.

또 정부 보조금, 군비, 입장료 수입 등으로 총 예상 사업비 496억원을 조달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강진군은 타당성 응용 결과가 나옴에 따라 전답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정부의 국제행사 승인을 받아 7월 조직위원회 구성과 제단법인 설립, 이사회와 사무국 구성 등 사업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l@

신안 임자·장산 농협 조합장 선출

지난달 29일 실시된 신안지역 농협조합장 선거에서 신임농협 조합장에 박성현(63·임자농협 이사), 장산농협 조합장에 정송관(50·현 조합장) 후보자가 각각 당선됐다.

신안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임자농협 조합장 선거는 선거인수총 820명 중 760명(투표율 92.7%)이 투표에 참여, 345표를 득표한 정 후보자가 당선됐다.

표 차에 불과한 박빙의 승부였다. 2위 후보자의 이의 제기로 5번에 걸친 검표결과 249표를 득표한 박 후보자가 당선됐다.

장산농협 조합장 선거는 선거인수총 820명 중 760명(투표율 92.7%)이 투표에 참여, 345표를 득표한 정 후보자가 당선됐다.

/서부취재본부=조완남기자 wncho@



신안 가거도 폐기물 종합처리장

'멸치잡이노래 전수관'으로 변신

23억 들여 내년 5월 완공

"...어하하 들판에 한배 썰물에 한배 매일 저녁 두 배씩 짙았구나 기와자 좋네 어해 어해 어하 오..."

'국토 최서남단' 신안군 가거도의 폐기물 종합처리장이 '가거도 멸치잡이노래'(전남도 무형문화재 제22호)를 들려주는 등 관광자원으로 활용된다.

신안군은 "가거도 1구에 주민들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장'과 연계해 '가거도 멸치잡이노래 전수관'을 건립하기로 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생활쓰레기로부터 청정해역을 지키고자 건립되는 쓰레기 처리장에 주민들의 애환을 담은 멸치잡이노래 전수관이 들어서 '가거도 새 명물'로 등장하게 됐다"고 말했다.

군은 사업비 23억원을 투입해 다음달 처리시설 옥상 240㎡에

천막구조의 150석 규모 관람장과 공연장을 설치하는 공사에 들어가 내년 5월 완공할 계획이다.

당초 군은 시간당 190kg을 소각할 수 있는 최신 시설의 소각로 등을 갖춘 900㎡ 규모의 처리장을 짓기로 했다. 그러나 콘크리트 구조물로 건립될 처리장 옥상을 활용해 보자는 의견이 사업시행 초기에 나왔고, 논의끝에 '가거도 멸치잡이노래 전수관'을 건립하기로 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생활쓰레기로부터 청정해역을 지키고자 건립되는 쓰레기 처리장에 주민들의 애환을 담은 멸치잡이노래 전수관이 들어서 '가거도 새 명물'로 등장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조완남기자 wncho@

장막구조의 150석 규모 관람장과 공연장을 설치하는 공사에 들어가 내년 5월 완공할 계획이다.

당초 군은 시간당 190kg을 소각할 수 있는 최신 시설의 소각로 등을 갖춘 900㎡ 규모의 처리장을 짓기로 했다. 그러나 콘크리트 구조물로 건립될 처리장 옥상을 활용해 보자는 의견이 사업시행 초기에 나왔고, 논의끝에 '가거도 멸치잡이노래 전수관'을 건립하기로 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생활쓰레기로부터 청정해역을 지키고자 건립되는 쓰레기 처리장에 주민들의 애환을 담은 멸치잡이노래 전수관이 들어서 '가거도 새 명물'로 등장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조완남기자 wncho@

천막구조의 150석 규모 관람장과 공연장을 설치하는 공사에 들어가 내년 5월 완공할 계획이다.

당초 군은 시간당 190kg을 소각할 수 있는 최신 시설의 소각로 등을 갖춘 900㎡ 규모의 처리장을 짓기로 했다. 그러나 콘크리트 구조물로 건립될 처리장 옥상을 활용해 보자는 의견이 사업시행 초기에 나왔고, 논의끝에 '가거도 멸치잡이노래 전수관'을 건립하기로 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생활쓰레기로부터 청정해역을 지키고자 건립되는 쓰레기 처리장에 주민들의 애환을 담은 멸치잡이노래 전수관이 들어서 '가거도 새 명물'로 등장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조완남기자 wncho@

장막구조의 150석 규모 관람장과 공연장을 설치하는 공사에 들어가 내년 5월 완공할 계획이다.

당초 군은 시간당 190kg을 소각할 수 있는 최신 시설의 소각로 등을 갖춘 900㎡ 규모의 처리장을 짓기로 했다. 그러나 콘크리트 구조물로 건립될 처리장 옥상을 활용해 보자는 의견이 사업시행 초기에 나왔고, 논의끝에 '가거도 멸치잡이노래 전수관'을 건립하기로 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생활쓰레기로부터 청정해역을 지키고자 건립되는 쓰레기 처리장에 주민들의 애환을 담은 멸치잡이노래 전수관이 들어서 '가거도 새 명물'로 등장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조완남기자 wncho@

장막구조의 150석 규모 관람장과 공연장을 설치하는 공사에 들어가 내년 5월 완공할 계획이다.

당초 군은 시간당 190kg을 소각할 수 있는 최신 시설의 소각로 등을 갖춘 900㎡ 규모의 처리장을 짓기로 했다. 그러나 콘크리트 구조물로 건립될 처리장 옥상을 활용해 보자는 의견이 사업시행 초기에 나왔고, 논의끝에 '가거도 멸치잡이노래 전수관'을 건립하기로 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생활쓰레기로부터 청정해역을 지키고자 건립되는 쓰레기 처리장에 주민들의 애환을 담은 멸치잡이노래 전수관이 들어서 '가거도 새 명물'로 등장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조완남기자 wncho@

장막구조의 150석 규모 관람장과 공연장을 설치하는 공사에 들어가 내년 5월 완공할 계획이다.

당초 군은 시간당 190kg을 소각할 수 있는 최신 시설의 소각로 등을 갖춘 900㎡ 규모의 처리장을 짓기로 했다. 그러나 콘크리트 구조물로 건립될 처리장 옥상을 활용해 보자는 의견이 사업시행 초기에 나왔고, 논의끝에 '가거도 멸치잡이노래 전수관'을 건립하기로 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생활쓰레기로부터 청정해역을 지키고자 건립되는 쓰레기 처리장에 주민들의 애환을 담은 멸치잡이노래 전수관이 들어서 '가거도 새 명물'로 등장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조완남기자 wncho@



"영어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광산 영어캠프 수료식

광산구는 최근 호남대 광산캠퍼스 영어 학습관에서 '광산 영어캠프' 수료식을

가졌다. 광산구는 지난 한 달간 관내 거주 중학교 1~2학년 40여 명을 대상으로 원어민 교사와 함께 스토리텔링 기법

〈광산구 제공〉

공장동은 '밀 기념관' 창고동은 '미술관'

목포 한국제분 사일로 산업유산 재활용 방안 모색

"공장동을 활용해 밀가루를 주제로 하는 '밀 기념관'을 조성하고, 창고동은 미술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활용하면 어떨까?"

목포시가 삼학도에 위치한 한국제분 사일로를 산업유산으로 재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전문인력을 통해 활용방안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제시한 후 보고회를 거쳐 3월중 한국제분 존치여부 등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목포시민 700여 명을 대상으로 한국제분에 대한 정확한 고찰 및 존치여부, 존치할 경우 어떤 용도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설문 조사를 완료했다.

또한 시는 당초 2011년 6월 철거예정이던 삼학도내 한국제분 건물에 대해 문화관광자원으로의 재활용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한국제분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추진중에 있다.

대상학도 난방공원과 인접해 있는 한국제분은 2만2천㎡의 부지에 광장동 포함 총 13동의 건물과 높이 38m의 콘크리트 사일로 20기 규모로 건립돼 있다. 지난해부터 목포시의 회뿐 아니라 시민 일각에서 '한국제분 사일로'가 산업유산으로 가치가 있다'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대두됐다.

〈서부취재본부=임영준기자 lyj@

/서부취재본부=임영준기자 lyj@

유통회사 설립 지원 대상에 농식품부, 영광군 유통 선정

영광군 유통이 1일 농림수산식품부의 2010년도 시·군 유통회사 설립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다.

시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전문인력을 통해 활용방안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제시한 후 보고회를 거쳐 3월중 한국제분 존치여부 등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목포시가 삼학도에 위치한 한국제분 사일로를 산업유산으로 재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문화관광자원으로의 재활용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한국제분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추진중에 있다.

대상학도 난방공원과 인접해 있는 한국제분은 2만2천㎡의 부지에 광장동 포함 총 13동의 건물과 높이 38m의 콘크리트 사일로 20기 규모로 건립돼 있다. 지난해부터 목포시의 회뿐 아니라 시민 일각에서 '한국제분 사일로'가 산업유산으로 가치가 있다'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대두됐다.

〈서부취재본부=임영준기자 lyj@

/서부취재본부=임영준기자 lyj@

(주)국민법률경매

공인중개사 : 강영희
TEL 062-364-8700
H.P 010-4608-3700</p